

비만과 대장 용종 빈도와 연관성

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

* 문홍주 · 최창환 · 김상중 · 문장식 · 이수연 · 박범준 · 이현웅 · 김형준 · 김정옥 · 도재혁 · 김재규 · 장세경 · 박실무

배경 : 비만은 대장암 발생과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. 하지만 대장 용종과 비만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어 연구자는 복부비만과 대장용종과의 연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. **대상 및 방법 :** 2006년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중앙대학교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 받은 103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. 대상 수검자는 허리둘레를 포함한 신체계측, 혈압 측정, 혈액 검사, 그리고 복부초음파검사 등을 시행 받았다. 나이, 성별, 복부비만 및 대사성 증후군 유무와 체질량지수(BMI)에 따라 대장 용종과 선종의 빈도와 크기, 다발성 선종(3개 이상)의 빈도, 그리고 근위부 선종(비장 만곡 근위부) 및 진행성 선종의 빈도를 조사하였다. 복부비만의 기준은 International Diabetic Federation 기준에 따라 허리둘레가 남자에서 90cm 이상, 여자에서 80cm 이상으로 하였고 비만은 남녀 모두 BMI 25 이상을 기준으로 하였다. **결과 :** 대상 환자는 남자 676 명, 여자 354명 이었고, 평균 나이는 남자 48.4±0.4, 여자 49.0±11.1세였다. 전체 1030명 중 복부비만은 366명(35.5%), 대사성 증후군은 242명 (23.5 %), 그리고 비만은 403명(39.1 %)이었다. 복부비만 군에서 복부비만이 없는 군에 비해 대장 용종의 빈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(32.8% vs 27%, p=0.049), 대장 선종의 빈도 역시 유의하게 높았다(26.0 % vs 17.9 %, p=0.002). 근위부 선종, 진행성 선종의 빈도와 다발성 선종의 빈도는 복부비만과 관련이 없었다. 그 외 대사성 증후군 유무와 BMI에 따라서는 대장 용종의 빈도에 차이가 없었다. 성별에 따라 남자에서 선종의 빈도가 높았고,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선종의 빈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. 다변량 회귀분석에서 복부비만(odd ratio, 1.47 [95% CI 1.011-1.906], p=0.019)은 나이와 성별에 관계없이 선종 발생의 독립적인 위험인자였다. **결론 :** 복부비만은 대장 선종의 발생에 독립적인 위험 인자였다. 따라서 복부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대장암의 선별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.

용종절제술 후 확인된 대장용종 간과율에 대한 고찰

고신대학교 복음병원 소화기내과

*박세영 · 박선자 · 박무인 · 김규중 · 문원 · 김선정 · 유홍준 · 전우성 · 양성우 · 박동양

목적 : 대장내시경을 통한 대장용종의 제거는 대장직장암의 발병률과 사망률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선별검사 도구로서 서구화된 식생활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그 필요성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. 본 연구에서는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용종간과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. **대상 및 방법 :** 2005년 2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본원 소화기내과를 방문하여 대장내시경을 받은 후 용종이 발견되어 2개월 이내에 계획된 용종절제술을 시행받은 317명을 대상으로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. **결과 :** 전체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58.9세였고 남녀 비는 205명(64.7%): 112명(35.3%)이었다. 평균 용종간과율은 26.6% 였는데, 내시경 회수시간이 길수록 용종간과율은 의미있게 감소하였으며(p=0.000), 최초 검사에서 발견된 용종의 개수와 용종간과율이 단순상관분석에서는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없었지만(p=0.197), 내시경 회수시간을 통제한 편상관분석에서는 최초검사의 용종 개수가 많을수록 용종간과율은 의미있게 증가하였다(p=0.028). 숙련자의 내시경 회수시간은 미숙련자의 회수시간보다 의미있게 짧은 경향을 보였으며(p=0.001), 숙련자와 미숙련자간의 평균 용종간과율은 각각 24.7%와 27.6%로 서로간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는데(p=0.271), 이는 숙련자의 내시경 회수시간이 미숙련자보다 짧은 경향으로 인해 이것이 숙련자의 용종간과율을 증가시키는 간접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결국 숙련자와 미숙련자 간의 용종간과율이 의미있는 차이가 없게 분석된 것으로 판단된다. 위치별 간과된 용종 비율은 상행결장(27.4%), 에스상결장(23.3%), 횡행결장(16.9%), 하행결장(11.1%), 직장(8.8%), 간만곡부(5.8%), 맹장(4.5%), 비만곡부(2.4%) 순서였고, 크기별로는 5mm이하(52.6%), 6~10mm(44.7%), 11~20mm(2.6%), 20mm초과(0.2%)의 순으로 높았다. 형태별로는 Is(65.8%), Isp(32.1%), Ip(2.1%)의 순서였으며, 선종과 비선종의 비율은 각각 50.2%와 49.8%로 나타났다. **결론 :** 평균 대장용종 간과율이 26.6%인 것을 보았을 때 이론적으로 4회의 검사를 해야 간과율을 0.5% 까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, 간과된 용종 중 선종의 비율이 절반이나 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간과율을 낮추는 것이 대장암 예방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. 간과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최초검사서 발견된 용종의 개수와 숙련 정도는 내시경 검사 당시에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못하므로, 내시경 회수시간을 늘이는 것이 용종의 간과율을 의미있게 낮추는 방법이라 생각된다.